

2016. 12. 05. ~ 12. 11. 주간

114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 · 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대파 출하 · 가격 · 생산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보성 참다래 제시골드 미국 수출
- 진안고원 토마토 6톤 첫 대만 수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마늘 · 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벼메뚜기를 이용한 육계 첨가 사료

정책동향

- 1시 · 군 1특화작목 육성, 농업활로 찾는다
- 농식품부,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매입 실시

사업신청 및 홍보

- 2017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농식품부, 국산 알뜰배 기획전 등 판촉 행사 추진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2도, 최고기온: 7~10도)보다 전반에는 조금 낮겠으나, 후반에는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조금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 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 대파 출하·가격·생산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전남도, 전남쌀 대한민국 최고 명품쌀 대상 선정
- ▶ 순천시, 낙안배 이곡마을, 전남 최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정
- ▶ 나주시, 자체사업 벼 경영안정 대책비 30억원 지급
- ▶ 곡성군, 농업기계연구회 전문성 확보 중요성 강조
- ▶ 고흥군, AI 인체감염 막자, 24시간 방역체계 유지
- ▶ 보성군, 2016년 쌀 고정·조건불리 직불금 9,680백만원 지급
- ▶ 진도군,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새누리·미품' 선정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보성 참다래 '제시골드' 미국 수출
- ▶ 진안고원 토마토 6톤 첫 대만 수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마늘·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마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제조 방법
- ▶ 벼메뚜기를 이용한 육계 첨가 사료
- ▶ 절화수국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처리방법
- ▶ 껍질까지 먹는 붉은 감자 '홍영'
- ▶ 어린잎채소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 확립
- ▶ 인삼 후작지에 쌈약초 재배, 새로운 소득원 기대
- ▶ 달콤한 겨울 딸기 수확 한창
- ▶ 단맛, 껍질째, 대과 소비자 입맛 따라 포도품종 변화 뚜렷
- ▶ 감귤 재배 정보 스마트폰에서 터치하세요
- ▶ 겨울철 한파 대비 농업기계 '보관관리' 철저!
- ▶ 겨울철 가축 분뇨 퇴·액비화 시설관리 요령

❁ 정책 동향 39

- ▶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농업활로 찾는다
- ▶ 2016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 ▶ 농식품부,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매입 실시
- ▶ AI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 소독실태 점검 실시

- ▶ 싱가포르, 신선과일 수입 증가세 지속
- ▶ 미얀마, 농기계 수입 급증
- ▶ 농촌진흥청, 짐바브웨에 KOPIA센터 개소식 개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2.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 유입 인도의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세 유입 및 아르헨티나의 건조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USDA의 수급 보고서에 앞선 포지션 스퀘어링 및 목요일 가격 하락 이후의 Bargain-buying으로 인해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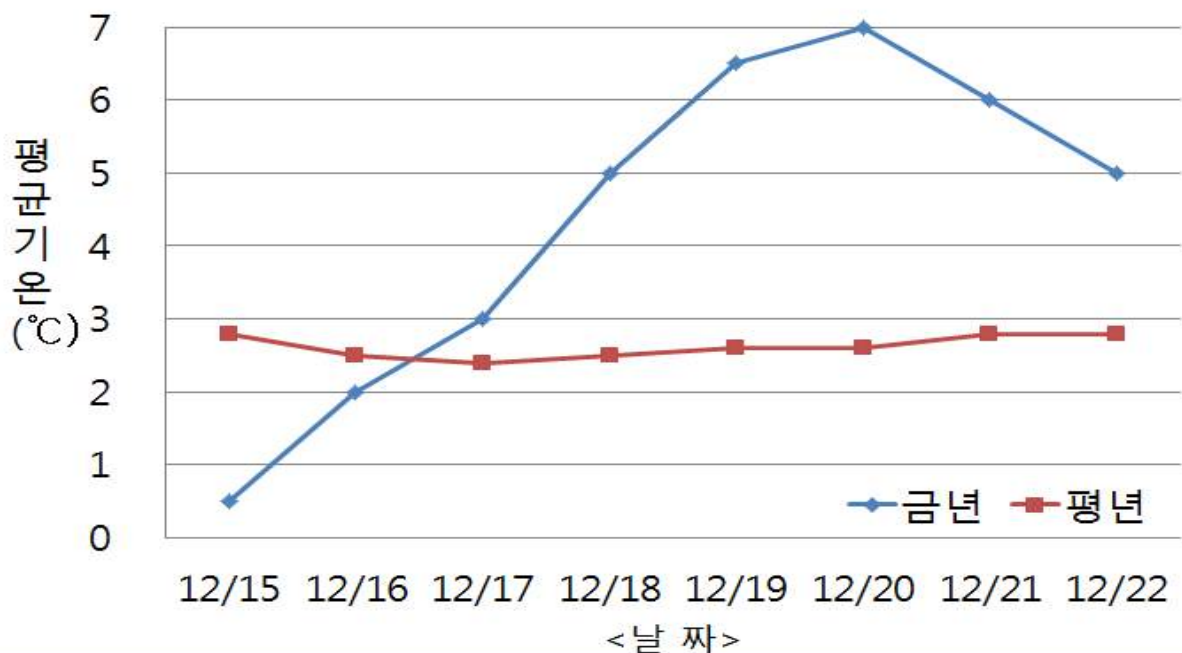
- ▶ 2017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 농식품부, 국산 알뜰배 기획전 등 판촉 행사 추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4	2.6	1.8	8.9	7.5	1.4	-0.1	-1.4	1.2	0.9
12. 15.(목)	0.5	2.8	-2.3	4.0	7.5	-3.5	-3.0	-1.1	-1.9	0.9
12. 16.(금)	2.0	2.5	-0.5	6.0	7.2	-1.2	-2.0	-1.4	-0.6	0.9
12. 17.(토)	3.0	2.4	0.6	9.0	7.2	1.8	-3.0	-1.6	-1.4	0.8
12. 18.(일)	5.0	2.5	2.5	11.0	7.4	3.6	-1.0	-1.5	0.5	0.9
12. 19.(월)	6.5	2.6	3.9	11.0	7.6	3.4	2.0	-1.3	3.3	1.0
12. 20.(화)	7.0	2.6	4.4	11.0	7.7	3.3	3.0	-1.4	4.4	0.9
12. 21.(수)	6.0	2.8	3.2	10.0	7.8	2.2	2.0	-1.2	3.2	0.9
12. 22.(목)	5.0	2.8	2.2	9.0	7.8	1.2	1.0	-1.3	2.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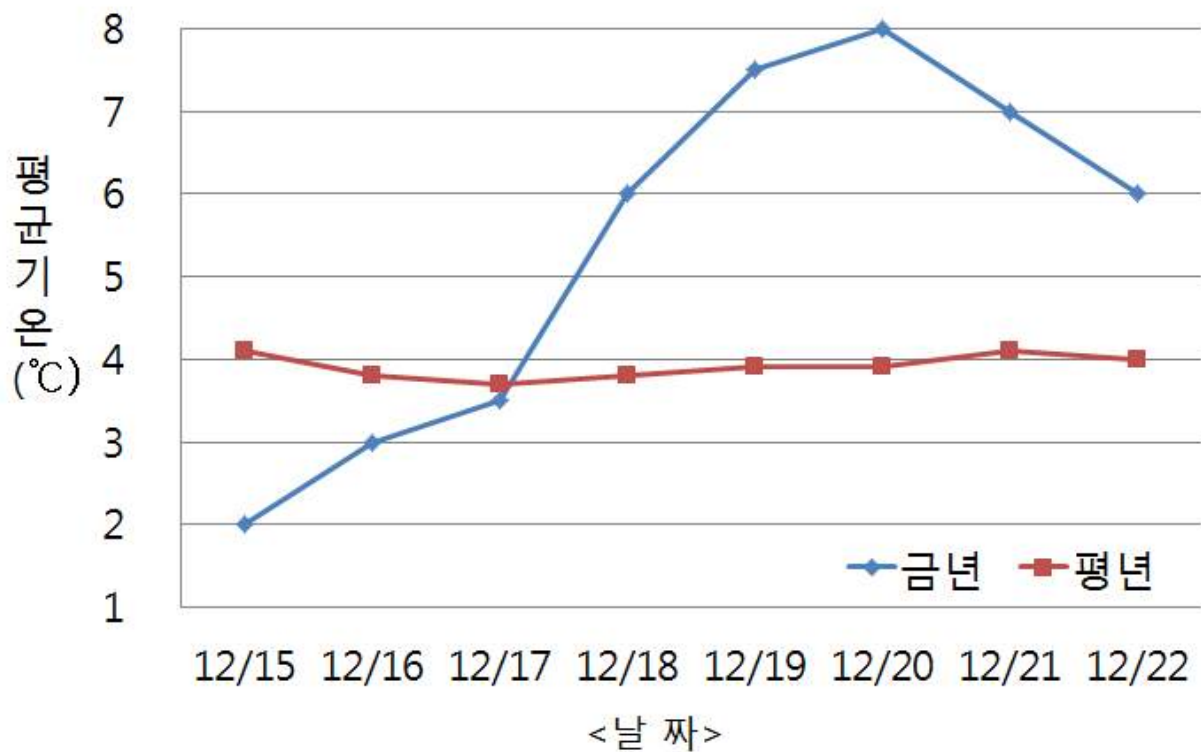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4	3.9	1.5	9.0	8.5	0.5	1.8	0.5	1.3	0.8
12. 15.(목)	2.0	4.1	-2.1	5.0	8.4	-3.4	-1.0	0.8	-1.8	1.0
12. 16.(금)	3.0	3.8	-0.8	6.0	8.2	-2.2	0.0	0.4	-0.4	0.9
12. 17.(토)	3.5	3.7	-0.2	9.0	8.3	0.7	-2.0	0.2	-2.2	0.7
12. 18.(일)	6.0	3.8	2.2	11.0	8.4	2.6	1.0	0.3	0.7	0.7
12. 19.(월)	7.5	3.9	3.6	11.0	8.4	2.6	4.0	0.4	3.6	0.8
12. 20.(화)	8.0	3.9	4.1	11.0	8.6	2.4	5.0	0.4	4.6	0.7
12. 21.(수)	7.0	4.1	2.9	10.0	8.7	1.3	4.0	0.6	3.4	0.6
12. 22.(목)	6.0	4.0	2.0	9.0	8.7	0.3	3.0	0.5	2.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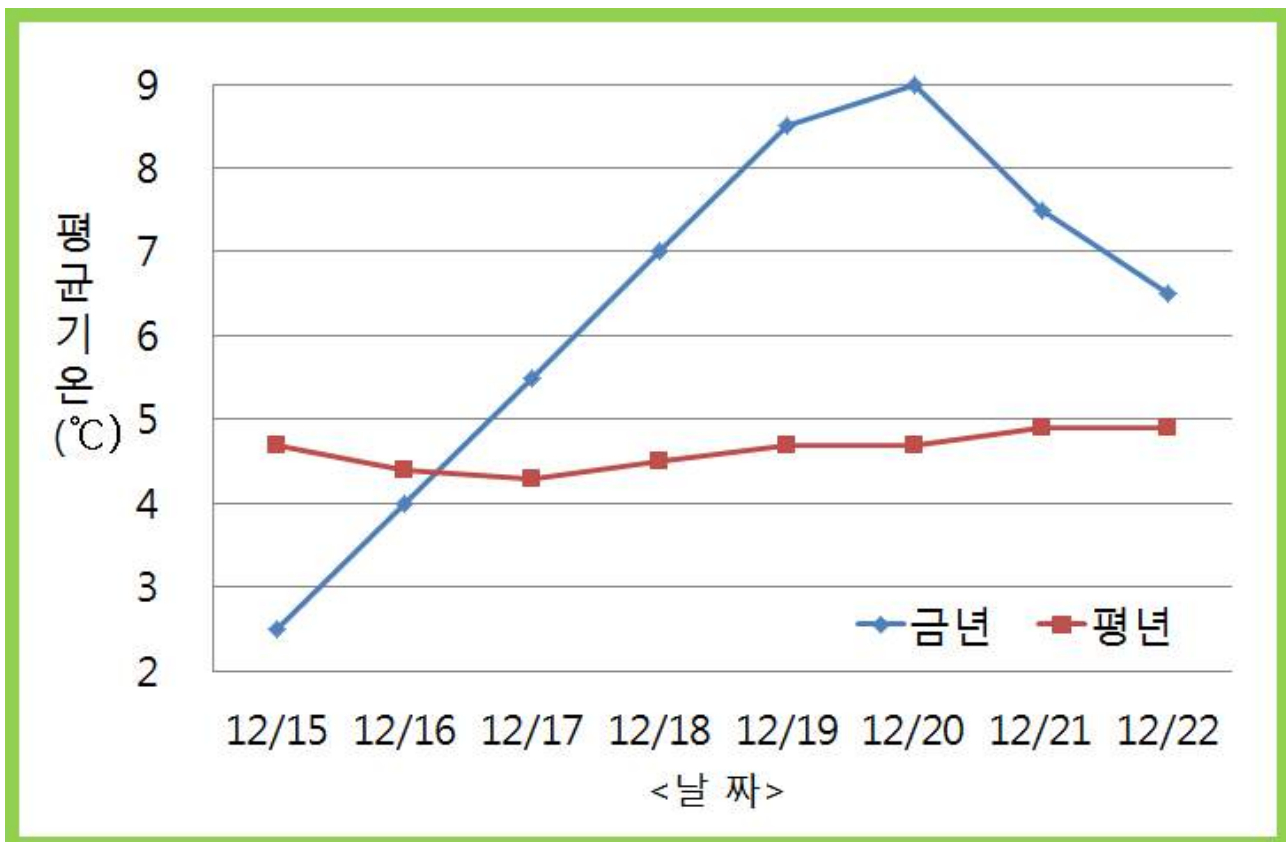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3	4.6	1.7	9.6	8.5	1.2	3.0	1.5	1.6	0.4
12. 15.(목)	2.5	4.7	-2.2	5.0	8.5	-3.5	0.0	1.5	-1.5	0.6
12. 16.(금)	4.0	4.4	-0.4	7.0	8.2	-1.2	1.0	1.2	-0.2	0.4
12. 17.(토)	5.5	4.3	1.2	10.0	8.1	1.9	1.0	1.1	-0.1	0.3
12. 18.(일)	7.0	4.5	2.5	12.0	8.3	3.7	2.0	1.3	0.7	0.5
12. 19.(월)	8.5	4.7	3.8	12.0	8.5	3.5	5.0	1.5	3.5	0.4
12. 20.(화)	9.0	4.7	4.3	12.0	8.6	3.4	6.0	1.6	4.4	0.4
12. 21.(수)	7.5	4.9	2.6	10.0	8.8	1.2	5.0	1.7	3.3	0.3
12. 22.(목)	6.5	4.9	1.6	9.0	8.8	0.2	4.0	1.7	2.3	0.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저장동향 : 난지형 마늘 재고량 약 6만톤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 13% 적은 6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단위 : 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6년	92,973	29,920	3,546	59,507
2015년	85,576	28,618	2,588	54,370
평 년	107,000	35,000	3,624	68,376
전년대비	8.6	4.5	37	9.4
평년대비	-13.1	-14.5	-2.1	-13

□ 가격전망 : 12월 가격 지나다대비 강보합세 전망

○ 국내산 마늘 재고량이 평년대비 13% 감소하여 12월 간마늘 평균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36% 높은 7,5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7년산 재배면적 9% 내외 증가

○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양파에서 생산 대체되어 대서종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산 마늘의 경우 파종시기 잦은 강우로 종자가 부패하거나 포전 준비가 미흡한 일부 농가가 재배를 포기하였으나, 2017년산 마늘 기대 가격이 높아 강우로 인한 재배면적 변동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높은 생산비 부담으로 평년보다 9%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저장동향 : 11월말 재고량 지난해보다 많아

○ 2016년산 양파의 저온저장고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63만 2천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

(단위 : 천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6년	632	259	327
2015년	556	244	277
평 년	655	246	366
전년대비	13.6	6.3	17.9
평년대비	-3.6	5.6	-10.6

□ 가격전망 : 12월 도매가격 지난달과 비슷할 전망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양파 저장량의 증가로 지난해(1,580원) 보다는 낮으나, 지난달과는 비슷한 1,0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 감소 전망

○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4~8%, 평년보다 5~9% 감소한 1만 8,370~1만 9,089ha로 추정된다.

○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 천ha, %)

2017년	2016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18.4~19.1	19.9	20.2	-7.7~-4.1	-8.9~-5.3

대파 출하 · 가격 · 생산전망

□ 출하전망 : 12월 대파 출하량 지난해대비 감소 전망

- 12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지난해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2월 도매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12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지난해(1,940원)과 평년 (1,410원)보다 높은 2,3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겨울대파 작황은 부진하나, 회복세

- 겨울대파 작황이 지난해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농가는 31%로 나타났으나, 지난달 조사치(나쁨 52%)보다는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겨울대파 지난해대비 생육 상황

(단위 : %)

지 역	좋음	비슷	나쁨	합계
신안군	43.5	26.1	30.4	100
영광군	40	53.3	6.7	100
진도군	4.2	50	45.8	100
전 체	27.4	41.9	30.6	100

- 12월~내년 2월 대파 정식의향면적(내년 4~6월 출하)은 대파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년 1~2월 대파 출하면적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내년 1월	2.7	-1.9	2.8	-1.2
내년 2월	-	-1.2	2.5	-0.8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2. 1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2)	1주일전 (12/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배 양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32,400	36,800	42,073	↓ 12.0	↓ 23.0
	콩(백태)	35kg	187,800	186,800	161,250	147,400	164,867	↑ 27.4	↑ 13.9
	고구마(밤)	10kg	25,200	25,200	25,200	22,400	22,627	↑ 12.5	↑ 11.4
	감자(수미)	20kg	33,000	32,200	27,700	25,600	25,387	↑ 28.9	↑ 30.0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920	1,020	735	415	428	↑ 121.7	↑ 115.0
	양배추	10kg	14,000	16,200	12,950	3,650	4,747	↑ 283.6	↑ 194.9
	오이(다다기계통)	10kg	27,667	31,667	24,500	40,500	34,727	↓ 31.7	↓ 20.3
	애호박	8kg	19,400	19,800	20,850	27,400	24,333	↓ 29.2	↓ 20.3
	토마토	10kg	41,400	38,200	30,100	20,850	25,967	↑ 98.6	↑ 59.4
	당근	20kg	74,400	73,600	67,050	25,100	23,847	↑ 196.4	↑ 212.0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0,000	804,000	881,867	↓ 27.9	↓ 34.2
	풋고추	10kg	47,200	55,200	75,650	33,450	48,167	↑ 41.1	↓ 2.0
	마늘(깐마늘)	20kg	148,000	148,000	145,000	141,750	110,200	↑ 4.4	↑ 34.3
	양파	20kg	21,200	20,800	20,800	35,000	19,800	↓ 39.4	↑ 7.1
	대파	1kg	2,500	2,460	2,305	1,930	1,653	↑ 29.5	↑ 51.2
	파프리카	5kg	26,400	27,600	24,600	18,450	23,853	↑ 43.1	↑ 10.7
	멜론	8kg	28,000	26,600	27,100	27,050	26,953	↑ 3.5	↑ 3.9
	방울토마토	5kg	28,400	23,800	26,550	10,650	16,430	↑ 166.7	↑ 72.9
	수박	1개	16,000	16,200	13,450	16,400	11,813	↓ 2.4	↑ 35.4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200	37,200	38,100	36,300	44,022	↑ 5.2	↓ 13.2
	배(신고)	15kg	37,800	36,200	35,450	43,600	41,920	↓ 13.3	↓ 9.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2)	1주일전 (12/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600	519,600	513,600	534,000	542,667	↓ 2.7	↓ 4.3
	느타리버섯	2kg	14,600	15,200	15,500	12,000	11,613	↑ 21.7	↑ 25.7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9,100	8,450	8,270	↓ 3.0	↓ 0.8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51	7,802	8,057	7,700	6,449	↑ 2.0	↑ 21.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34	1,839	1,985	1,999	1,870	↓ 3.3	↑ 3.4
	닭고기	1kg	5,239	5,609	5,383	5,201	5,548	↑ 0.7	↓ 5.6
	계란(특란)	30개	5,954	5,647	5,660	5,221	5,616	↑ 14.0	↑ 6.0
	우유	1리터	2,528	2,528	2,528	2,550	2,462	↓ 0.9	↑ 2.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2. 1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13 천원	5,698 천원	5,842 천원	↓ 3.2	↓ 5.6
	거세	6,021 "	6,355 "	6,563 "	↓ 5.2	↓ 8.2
송아지 (6~7월)	암	2,569 "	2,591 "	2,528 "	↓ 0.8	↑ 1.6
	수	3,060 "	3,092 "	3,050 "	↓ 1.0	↑ 0.3
육우(600Kg)		2,708 "	3,004 "	3,422 "	↓ 9.8	↓ 20.8
젖소수송아지(7일령)		197 "	209 "	310 "	↓ 5.7	↓ 36.4
돼지(110kg)		367 "	327 "	362 "	↑ 12.2	↑ 1.3
육계(원/kg)		1,262 원	1,656 원	1,518 원	↓ 23.7	↓ 16.8
계란(원/특란10개)		1,376 "	1,280 "	1,036 "	↑ 7.5	↑ 32.8
오리(원/kg)		1,933 "	1,833 "	2,000 "	↑ 5.4	↓ 3.3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386원/마리 (△365) * (5,658 - 2,332 + 3,060 = 6,418)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도, 전남쌀 대한민국 최고 명품쌀 대상 선정

-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담양 대숲맑은쌀), 우수상(함평 나비쌀)선정 -
- 전남도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담양 대숲맑은쌀이 대상을, 함평 나비쌀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전남쌀 품질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쌀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평가를 해 왔으나, 세계시장에서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선정 방식을 변경해 올해 처음으로 명품쌀을 선정하게 됐다.
- 명품쌀 평가는 각 시·도별 2개의 우수 브랜드 쌀에 한해서만 추천토록 제한하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천된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품종, 품위, 식미 평가를 2회에서 3회로 강화하는 한편, 전년도산 뿐 아니라 올해 생산·출하된 쌀까지 종합적으로 연중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 전남도는 올해 폭염, 가뭄, 태풍, 수발아 등 농업여건이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 대비해 추천된 3개 지역(고흥·담양·함평)과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지도 등 명품쌀 생산과 유통관리에 매진해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순천시, 낙안배 이곡마을, 전남 최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정

- 순천시 낙안배 이곡 정보화마을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6년 전남 우수 정보화마을 선정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6일 진도에서 열린 전남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번 선정은 특산물 및 체험상품 온라인 판매금액 100점, 행사 참여 건수 및 정보화마을 활동 100점 등 총점 2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순천시 낙안배 이곡 정보화마을은 전남 47개 정보화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 낙안 정보화마을은 많은 일조량과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낙안배와 청정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낙안민속오이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명품 낙안배 홍보를 위해 배꽃축제, 배숙기, 배 따기 체험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이외에도 뽕잎차(티백·덕음차)·매실·배즙 등 특산품 판매를 통해 올해 4억여원의 고수익을 올렸다.
-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낙안에서 생산되는 배와 오이 등 친환경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전자상거래 유통 등 다각적인 판매방법을 모색해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자체사업 벼 경영안정 대책비 30억원 지급

- 금년도 수확기 쌀값폭락, 잦은 강우에 의한 수발아 등 농가경영 안정에 최우선 -

- 나주시는 쌀값폭락과 잦은 강우에 의한 수발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확보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30억원을 8일 지급했다.
- 올해 지급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농가경영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지난해 17억원보다 13억원 (76%)을 늘렸다.
- 지급대상 농가는 8,913농가에 대상면적은 7,665ha로, 지급단가는 m²당 39원, ha당 39만원을 지급했는데, ha당 전년에 비해 17만 5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 나주시는 2008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과는 별도로 못자리용 상토비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벼 재배농가의 구조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 쌀 생산 및 쌀소비 촉진 등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스스로도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나주시

■ 곡성군, 농업기계연구회 전문성 확보 중요성 강조

- 곡성군 농업기계연구회(회장 정종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현장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일 농업기계연구회원 19명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얀마농기코리아(주)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미래 농업기계화의 동향을 살펴보고 곡성의 농업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미래농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환경에서 대응이 가능한 미래농업기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그 필요성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다.
- 계속해서 얀마농기코리아(주)의 방문이 이어졌다. 연구회원들은 기종별로 자가 정비요령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관리 방법을 익혔으며,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 현장교육을 마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되짚어 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종성 회장은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농업기계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구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곡성의 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AI 인체감염 막자, 24시간 방역체계 유지

- 최근 전남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 군 보건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4개반 20명을 특별방역 대책반으로 편성·설치하고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기로 했다. AI 특별방역 대책반은 군 보건소장을 총괄로 △고위험군 관리반 △교육·홍보반 △인플루엔자 감시반 △현장의료반이다.
- 고위험군 관리반은 고위험군 조사 및 관리·감시를 담당하고 교육·홍보반은 AI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홍보를 맡는다.
- 인플루엔자 감시반은 환자발생대비 관내의료기관 및 고위험군 감시, 현장의료반은 AI 발생 시 타미플루 및 개인보호복 지급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담당한다.
- 특별방역대책반 편성에 앞서 군은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 장비 150개를 구비하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금류 사육농가 종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 235명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일제접종을 완료한 바 있다.
- 또한, 축사 및 가금류 사육농가 등 취약지역 주변과 도로의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축산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류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면서, “닭·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38도 이상의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2016년 쌀 고정·조건불리 직불금 9,680백만원 지급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총 7,246농가, 면적 9,817ha에 대한 총 9,680백만원의 2016년도 쌀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업별로 보면, 쌀 고정직불금은 6,681농가, 면적 9,341ha에 총 9,561백만원이, 조건불리 직불금은 565농가, 면적 476ha에 총 119백만원이 지급되었다.
- 직불금 지급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으로 진흥지역은 ha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80만원으로 지급됐다.
- 한편 보성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계속된 쌀값하락, 벼 수탈아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군비 32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2017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가당 0.1~3ha, ha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보성군

진도군,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새누리·미품’ 선정

- 진도군이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새누리’와 ‘미품’ 품종을 결정했다.
-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벼 종자확보, 미질개선 등의 의견 수렴 후 내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과 진도군 대표품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진도군은 시범재배를 통해 가장 미질이 좋은 품종을 군 대표품종으로 선정해 농협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고품질 쌀을 생산·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의 종자확보를 돕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종자알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 진도군 쌀 이미지 개선과 함께 전남 10대 브랜드 쌀, 전국 12대 브랜드 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품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미질이 좋고 종자 확보가 편리한 품종으로 선정했다”며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적극 육성,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 11월 9일 임회면 선항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6,415톤(160,377 가마)을 매입할 계획이다.

* 출처 : 진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보성 참다래 '제시골드' 미국 수출

- 지난해에 이어 20톤 미국 수출 상차식 가져 -

- 보성 참다래 제시골드가 지난해 20톤 미국 수출에 이어 8일 별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 지난해 별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는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인 H트와 100톤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참다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해외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참다래가 연간 4,165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보성군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도 공동출하실적 120억을 목표로 산지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진안고원 토마토 6톤 첫 대만 수출

- 일본에 이어 매주 2~6톤씩 수출 계획 -

- 진안고원 명품 토마토가 일본에 이어 대만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 진안군은 지난 12월 2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이번에 대만으로 6톤의 토마토를 수출한데 이어 매주 2~6톤씩 추가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안 토마토는 그동안 일본에 매주 2톤씩 수출돼 왔다.
- 진안군은 이번 진안 토마토 수출을 위해 3ha 규모의 진안농산 수출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연간 1,2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마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토마토 수출영농법인에 참여하는 농가 숫자를 확대하겠다”며 “또 농약안전사용기술 교육, 지속적인 수출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안정적인 토마토 수출과 농가 소득증대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마늘·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개발기술 내용

- 마늘·양파 수확 후 비상품 구근이나 과잉생산 또는 묶은 구근을 사용하되 썩지 않은 구근을 사용함
 - 특히 마늘·양파의 구근이 썩은 것은 이취(악취, 구린내)와 독성의 원인이 되어 정유나 식품추출물로 사용할 수 없음
- 마늘정유 생산을 위해서는 비상품용 생마늘을 사용하거나 수확 후 1년 묶은 마늘도 식품향료용 천연정유 생산용으로 활용함



H2C=CH-CH2-S-S-CH2-CH=CH2
마늘·양파 데일리설파이드

구 분 (생물기준)	재 배 생산량 (kg/10a)	비상품용 (kg/10a)	원 료 판매가 (천 원)	정 유 생산량 (L/10a)
마늘	1,405	281 (건마늘 112.9)	562	1.6 (건마늘정유기준)
양파	6,458	1,292	448	2,584 (50% 향미유)

□ 개발기술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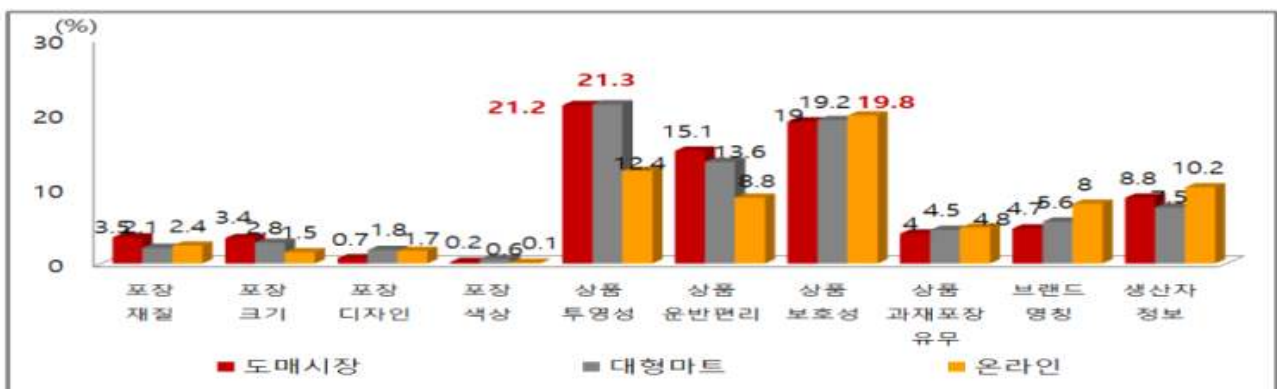
- 일반농가에서 불용화 되기 쉬운 비상품 마늘·양파, 과잉생산 또는 묶은 재고량 대량 소비로 수급조절 가능
- 10a당 마늘은 562천원, 양파는 448천원 농외소득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마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 개발기술 내용

- 도매시장에 고구마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시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 투영성 21.2, 보호성 19, 운반편리 15.1, 생산자 정보 8.8, 브랜드 명칭 4.7, 상품 과대포장 유무 4, 포장박스 재질 3.5, 포장박스 크기 3.4, 포장박스 디자인 0.7, 포장박스 색상 0.2% 순임
- 온라인에서 고구마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시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 19.8, 상품 투영성 12.4, 생산자 정보 10.2, 상품의 운반편리 8.8, 브랜드 명칭 8, 상품 과대포장 유무 4.8, 포장박스 재질 2.4, 포장박스 디자인 1.7, 포장박스 크기 1.5, 포장박스 색상 0.1% 순임
- 포장박스 소재(재질)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구입단위(중량)에 따라 47.6,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 15, 친환경 소재 9%등 임



□ 개발기술 기대효과

- 포장박스에서 브랜드 노출로 농장의 인지도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제조 방법

□ 개발기술 내용

○ 홍차 제조 과정 : 여름, 가을 찻잎 → 시들리기(실내상온 24시간) → 비비기(25분) → 상온발효(실내상온 2~3시간) → 건조(120℃, 20분)

○ 홍차와 혼합 비율

- 홍차 70 +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기호성 및 기능성

차종류	총아미노산 (%)	유리당 (%)	색도 (a)	관능평가 (점)	플라보노이드 (mg/100g)	아질산 소거능(%)
홍차 50 + 특용작물50%	1.7	3.75	1.1	49.3	1,360	19.6
홍차 60 + 특용작물40%	2.0	4.33	1.4	54.9	1,330	21.3
홍차 70 + 특용작물30%	2.3	4.40	1.6	61.3	1,460	23.4

※ 특용작물 50%(어성초 25, 자소엽 25), 특용작물 40%(어성초 15, 자소엽 15, 뽕잎 10),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여름, 가을 찻잎이용 특용작물 혼합 홍차로 부가가치 향상

- 엽차 8,000 → 혼합홍차 20,000원/kg (250% 증)

○ 연중 다양한 혼합차 제품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발효차 150억원 수입 대체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 벼메뚜기를 이용한 육계 첨가 사료

□ 개발기술 내용

- 벼메뚜기 건조 분말 1%를 육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체중 6.3% 증가, 사육기간 1.6일 단축
 - 육질 내 콜레스테롤 21% 감소, 면역글로불린 A, M 78~43% 증가
- 육계 첨가사료 급여 시 생산성 및 육질분석 (2015)

구 분	대조구	0.5%첨가	1%첨가	2%첨가
개시체중(g)	42	43	42	42
종료체중(g)	2,002	1,964	2,126	2,093
증체량(g)	1,960	1,921	2,084	2,051
사료 요구율	1.53	1.52	1.50	1.50
콜레스테롤(mg/100g)	142.26	128.64	116.99	88.85
면역글로불린A(mg/ml)	0.38	0.56	0.68	0.36
면역글로불린M(mg/ml)	0.43	0.68	0.61	0.59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벼메뚜기 성충을 수확하여 24시간 절식 후 동결한 다음, 열풍 40℃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분쇄한다.
- 벼메뚜기 분말을 육계 사료에 1% 첨가하여 급여한다.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김현진, 강성주, 김선곤

■ 절화수국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처리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절화수국 르네이트에서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관주처리 방법
 - 황산알루미늄 2,000ppm 희석액 500ml를 11월부터 1~2주 간격으로 12회 관주 시 안정적인 청색 발현
- 황산 알루미늄 처리시기에 따른 수국의 화색변화 (2015)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절화수국 용기(화분)재배에서 활용 가능
- 월동 전 11월부터 황산알루미늄을 2,000ppm으로 희석하여 주당 500ml씩 관주함, 관주횟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주 간격으로 4회, 1월부터 2월까지 1주 간격으로 8회 등 총 12회 처리함



【수국 시험포장 개화】

【청색발현 모습】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기광연, 윤봉기

■ 껍질까지 먹는 붉은 감자 ‘홍영’

- ‘홍영’ 껍질 폴리페놀 성분 풍부해 항암활성 효과 탁월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산 붉은색 켈러감자 ‘홍영’ 껍질이 일반감자 껍질에 비해 폴리페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암 활성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 ‘홍영’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polyphenol) 성분의 하나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은 전립선암 등에 항암활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다.
- 홍영 껍질의 추출물에는 폴리페놀 성분인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 299.2, 갈산(Gallic acid) 360.48, 프로토키테추산(Protocatechuic acid) 87.1 μ g/g 정도가 함유돼 있다.
- 함유된 성분은 대부분 항산화, 항염증, 항암 및 지방분해 작용 등을 하는데, 국내 대표적인 감자 품종인 ‘수미’와 비교하면 클로로젠산은 8.6, 갈산은 1.3, 프로토키테추산은 1.6배로 많았다.
- 건강기능성이 증명된 홍영감자는 일반감자에 비해 아린 맛이 적고 식감이 좋아 익히지 않고 껍질과 함께 생으로 먹거나 천연 맛깔장을 곁들여 샐러드로 이용하면 안성맞춤이다.
- 감자는 보관 시 녹색으로 변색된 껍질이나 싹이 돋은 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없앤 다음 섭취해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홍 영

■ 어린잎채소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 확립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주)미래원(대표 박종위)과 공동연구를 통해 어린잎채소의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린잎채소는 잎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수확하는 10cm 이내의 잎채소로 샐러드·비빔밥 및 나물용 채소로 이용이 늘고 있다.
- 조직이 연한 잎을 수확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미생물 증식이 빨라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 확립한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 수확→예냉→포장→출하 단계이며 신선편이 농산물은 예냉 뒤 세척→탈수 단계가 추가된다.
- 어린잎채소의 수확은 잎 길이가 10cm 이하일 때 수확하고, 수확할 때 사용하는 칼은 토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수확 후에는 5℃ 이하로 유지되는 예냉실로 이동해 선도저하를 방지한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0.02~0.03mm 두께의 PE(폴리에틸렌) 필름에 어린잎채소를 담은 후 품온을 낮춘다.
- 신선편이 농산물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3단계 세척(1차: 이물질 제거/버블, 2차: 60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침지, 3차: 헹굼/침지)을 각 2~5분 실시하며 회전식탈수를 950rpm, 30~70초 실시한다.
- 일반 농산물 포장을 위한 작업장 온도는 15~18℃,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작업장 온도는 10℃ 이하로 관리하며 완제품을 출하할 때는 저온유통을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은 수확부터 유통에 이르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을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기술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인삼 후작지에 쌈약초 재배, 새로운 소득원 기대

- 인삼재배 후작지 쌈채소 6종 시험결과, 일당귀·방풍이 가장 적합 -

-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인삼 후작지에 쌈약초 재배를 시험한 결과, 일당귀와 방풍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초,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육류와 같이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약초가 주목받고 있다.
- 이에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는 영주시와 공동으로 인삼 후작지에 쌈채소 재배가 가능한 약용작물 6종을 시험한 결과, 일당귀와 방풍이 진딧물 및 응애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육이 양호해 재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쌈채소 재배는 일반 관행재배(25cm×25cm)보다 밀식재배(10cm×10cm)해 잎을 연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일당귀의 주용 성분은 프탈아이드, 뷰틸탈아이드 등인데 관절염과 피부과민성항체 억제작용을 하며 말초혈관 확장작용을 하며 방풍의 주요성분은 푸스다놀글루코사이드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방풍 잎이 비만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쌈채소로 재배 가능한 약초는 당귀·일당귀·방풍·곽향·어수리·잔대 등이 있는데, 최근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당귀는 11월 기준으로 최고가가 17,500원/kg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방풍은 7,500원/kg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겨울철에 하우스 안에서 재배, 출하 시 기존의 경매가격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 농한기에 신소득 대체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달콤한 겨울 딸기 수확 한창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은 딸기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 재배 중인 딸기 유전자원과 품종 후보 계통들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 온실에서 수확 중이라고 밝혔다.
- 과거 딸기의 제철은 봄이었지만, 최근 겨울철에도 수확량이 많은 우수한 국산 품종의 개발과 농가보급의 확대로 딸기의 제철이 봄에서 겨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 특히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는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우수한 국산 품종을 개발·보급 하면서 현재 국산 품종 보급률은 92.9%에 달한다.
- 농촌진흥청은 수확시기에 따른 딸기 품질을 조사한 결과,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생산한 딸기가 봄철 딸기보다 당 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 딸기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 딸기의 평균 당도는 12.5°Brix로 봄철 딸기 평균 당도 10°Brix 보다 2.5°Brix나 높았다. 신맛을 내는 산도는 겨울철이 0.7%로 봄철의 1%보다 0.3% 가량 낮았다.
- 딸기는 꽃이 핀 뒤 수확하기까지 겨울철에는 60~70일, 봄철에는 30~45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겨울에는 저온으로 인해 야간의 호흡량이 적어 소모되는 양분은 적은 반면, 과일이 성숙하는 기간이 늘면서 양분 축적이 많아진다. 이에 열매가 크고 단단해지며 당도도 높아져 겨울철 딸기 품질이 우수해진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단맛, 껌질째, 대과 소비자 입맛 따라 포도품종 변화 뚜렷

- 한·칠레 FTA 이후 포도품종변화 추적조사, 캠벨얼리 크게 줄고 유럽종 증가 -

- 경북농업기술원은 한·칠레 FTA이후 포도의 대표 품종인 캠벨얼리는 크게 감소하고 유럽종 품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에 따른 경북지역 시설포도농가의 경쟁력 방안 마련을 위해 경북의 대표적인 포도주산지인 김천과 경산을 비롯한 영동·옥천·거창 등 전국 11개 시·군, 농가 175호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했으며 올해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 2004년 시설포도 농가의 품종 구성은 캠벨얼리 70.5, 거봉 18.5, 피오네 1.2, 델라웨어 4.7, 블랙올림피아 2.3, 자옥 0.2, 기타 2.6% 였지만 2016년에는 캠벨얼리 47.9, 거봉 15.6, 델라웨어 6.5, 자옥 14.7, 유럽종 품종 5.8, 기타 9.5%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포도의 대표 품종인 캠벨얼리의 재배면적이 70.5에서 47.9%로 22.6% 감소한 반면 샤인머스켓·알렉산드리아·썸머블랙·흑발라드 등 유럽종 품종이 5.8% 증가했다.
- 이러한 품종 변화는 '단맛', '껌질째 먹는', '대과' 등으로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유럽종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포도농가에서 꾸준히 품종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유럽종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활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6점으로 기준 점수 3.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활용 만족도는 재배 편리성, 내병성, 비용절감, 노동력 절감, 판매 가격 상승, 저장성, 판매 용이성, 소비자 선호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유럽종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소비선호성, 판매가격 상승, 판매 용이성은 만족했으나 내병성, 저장성, 비용절감, 노동력 절감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 특히, 유럽종 품종 재배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도입 후 농가 판매가격이 10.9% 증가했고 소득은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소득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최근 포도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함에 따라 유럽종 품종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을 개발·보급에 이러한 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감귤 재배 정보 스마트폰에서 터치하세요

- 농촌진흥청,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 열어 -

- 과수 재배 시 생육·기상·병해충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고품질 과실 생산에 도움 되는 과수 생육·품질관리 시스템(<http://fruit.nihhs.go.kr>)을 열고 정부3.0 정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올해 감귤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배, 2018년에는 사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과수 재배현장에서 고품질 과실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과수 생육 및 재배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 감귤 시스템은 과수 생육, 품질 관리, 기상·기후, 병해충, 농업기술 등 총 5개의 정보 분야로 구성됐다.
- 과수 생육에서는 감귤 주산지 14지역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생육정보를 제공하며 각 재배지의 발아기, 개화기, 착화량 및 착과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품질 관리에서는 과실품질 정보와 품질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해 성숙기 과실의 비대, 당도, 산 함량 등을 알아볼 수 있다.
- 품질 추적관리에서는 각 지역의 시기별 과실품질 변화를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상·기후 정보에서는 기상관찰 내용이 있어 각 지역별 실시간 데이터 기상검색, 기상통계 및 기상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재배 적지와 필지별 기후조회, 지도원본 요청기능이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지 변동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 병해충 정보는 병해충 진단정보와 병해충 예측 및 부록 기능이 있어 병해충 진단과 방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기술 정보에는 감귤재배와 관련한 다양한 품종, 재배, 장해, 경영, 수확 후 관리, 동영상 정보 등이 있어 농업인이 쉽게 기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감귤 생육정보 시스템'에 재배적지, 필지별 기후 조회, 지도 원본 등 기능을 추가해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농업기계 ‘보관관리’ 철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겨울철 잦은 한파와 폭설시 농업기계 고장 및 수명 단축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농업기계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일부 농가에서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정비 없이 야외에 방치하거나 눈·비에 노출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기계수명 단축 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 기종별로 정비 및 보관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도내 농가의 활용을 당부했다.
- 겨울철 농업기계는 장기간 야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눈·비가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외관 상태를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 특히 묵은 엔진오일은 엔진이 더운 상태에서 배출하고, 적합한 오일을 규정량만큼 주입한 후 공회전을 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또한 단기통의 경우에는 압축상태에서 보관하고, 냉각수는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동액을 교체해 보관해야 하며
- 휘발유 엔진의 경우 겨울철 결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탱크, 연료여과기, 기화기에서 연료를 완전히 제거해줘야 하며 경유엔진은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좋다.

- 전기계통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테이핑을 해주고 축전지는 터미널을 분리해 1~2개월마다 보완 충전해 주어야 한다.
- 전남농기원 농업교육과 김창옥 과장은 “각 기종별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한 뒤 보관, 관리 요령에 따라 눈·비를 맞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기계수명 연장과 기계부대비 절감 및 고장발생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겨울철 가축 분뇨 퇴·액비화 시설관리 요령

- 낮은 온도로 인한 발효 효율 저하 막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과 관리요령 등을 제시했다.
- 농가 규모의 퇴·액비화 시설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낮은 온도와 큰 눈은 시설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
- 겨울철에는 축종별 축산농가의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시설의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지붕이나 벽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원치커튼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커튼을 내렸을 때 벌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정비하고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또는 북쪽 벽면은 보온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 지붕이 파손되면 누수가 얼어붙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퇴비단에 물이 떨어져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바로 수리한다.



▲ 퇴비화 시설 (기계 교반식)



▲ 퇴비화 시설 (퇴적식)

- 퇴적식 퇴비단의 경우, 추운 날에는 뒤집기를 자제하고 뒤집기가 필요하다면 2~3일간 따뜻한 날을 골라 한 낮에 실시한다. 퇴비단 위치는 가급적 온도가 높은 남쪽으로 정한다.

- 송풍 퇴비단의 경우, 송풍기 가동은 한 낮에 실시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송풍을 멈추도록 한다. 기계 교반식 퇴비단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시간에 교반기를 작동한다.



▲ 액비화 시설 (농가형)

- 액비화 시설은 보온과 폭기 관리에 유의한다.
- 농가형 시설에서 액비온도는 되도록 7°C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상형 액비화 시설은 지붕과 벽체 사이에 공간을 보온덮개 등으로 막아 내부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 송풍 시설은 밤보다는 낮 동안 가동하며 액비 윗부분이 완전히 얼었을 때에는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얼음을 깨뜨린 다음에 가동해야 송풍장치의 고장을 막을 수 있다.
- 돈사(돼지우리) 슬러리(분뇨혼합액)를 유입할 경우에는 하루 중 슬러리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선택하고 작업완료 뒤에는 배관에 남아 있는 액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 겨울철에는 퇴·액비화 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시설 지붕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면 부상이나 시설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없애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농업 활로 찾는다

- 2017년도 6개 시·군에 30억 투입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17년도에 6개 시·군에 30억원(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감소, 작목별 과잉생산,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 석류 안전재배 등 시·군 여건에 맞는 자립형 특화작목을 선정, 생산기술·저장·가공·R&D·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해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농업의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순천시는 국가정원 1호의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화훼도시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화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6차산업화, 광양시의 생강 특화작목 육성, 고흥군의 석류 고품질 안전재배, 장흥군의 블루베리 조기수확 및 가공 상품화, 함평군의 생대추 명품화, 영광 모시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사업 등 2017년도에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시·군별 독자성, 차별성이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2016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물 전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2월 8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농촌자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2017년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사례 발표, 성과물 전시 등을 통해 농촌자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특히 이날 평가회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농촌자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직접 사업평가에 참여하여 관계공무원과 함께 분야별로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농촌자원사업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농식품가공 창업보육, 향토음식자원화 농가 맛집 조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 이날 발표한 농촌자원사업 우수사례로는 장성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 운영성과, 신안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장흥군의 6차산업 수익모델 추진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담당공무원이 발표하였다.
- 전남농기원 박혜량 농촌지원과장은 “미래의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비롯한 농업·농촌 자원화,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활동지원 등의 농촌자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한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식품부,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매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을 12월 12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 해외공여용 쌀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에 비상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PTERR)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외공여용 쌀을 '14년부터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3만톤을 매입하면 총 비축량은 9만톤이 된다.
- 해외공여용 쌀은 효율적인 매입을 위해 전업농, 들녘경영체, 농업법인 등 규모화 된 단지를 대상으로 대량 매입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조곡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12월말 경 확정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공여용 쌀은 회원국의 원조 요청이 없을 경우 3년 동안 비축한 후 가공용으로 방출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회원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우선 소규모 물량을 회원국에 무상 원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I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 소독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일제 소독의 날(12월 7일) 운영과 병행하여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이 지자체 거점 소독장소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세종 등지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자체의 방역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태, 도축장·사료공장·비료제조업체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그 간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설정하여 축산농장 및 관계 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번 일제 소독의 날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축산시설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자체 소독활동 뿐만 아니라, 지자체·축협 등 방역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차량을 모두 동원하여 축산시설 내외부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싱가포르, 신선과일 수입 증가세 지속

- 싱가포르 농수산물식품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싱가포르 식량 자급률은 10%에 불과하며, 그 외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은 서울의 약 1.2배인 719.1km²인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임
-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는 무관세 대상품목이며(알코올 음료 제외), 최종거래 단계에서 7%의 GST(Goods and Services Tax)만 부과함
- 농수산물식품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싱가포르로 수입된 신선과일은 약 44만톤에 이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2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신선과일 주요 수입국은 미국(19.8), 말레이시아(13.7), 뉴질랜드(13.1), 중국(11.9%) 등임
- 싱가포르는 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5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과 석류를 수입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과일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싱가포르로 수입되며,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과일과 경쟁함. 3개국의 주요 수입 과일은 사과·배·포도·멜론 등이 있음
- 한국산 과일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임. 우리나라 과일은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과일 판촉행사를 종종 볼 수 있음

- 싱가포르의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될 만큼 작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계 각국으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역·국가별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과일 종류 및 원산지별 생산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수출 시기에 따라 싱가포르 과일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진출하는 경우, 경쟁국 상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함
- 싱가포르의 주요 과일 판매처는 3대 유통사인 NTUC(The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FairPrice, Dairy Farm, Sheng Siong 등이며, 전체 과일 매출량의 약 80%를 차지함. 이들은 비용 효율성을 위해 직접 물품을 저장하고 재포장하는 자체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음
- 온라인시장을 통한 과일판매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레드마트와 같은 신규 온라인 마트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며, 기존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싱가포르의 한국산 과일 수입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약 7.3% 증가하였으며, 약 3.4%의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한국산 복숭아와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짐
- Cold Storage 구매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높으며, 한국산 과일을 프리미엄 품질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감·딸기·복숭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과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얀마, 농기계 수입 급증

- 미얀마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농기계 보급을 통한 농업 현대화는 미얀마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임
- 미얀마는 기술 부족으로 농기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 농기계의 가격이 높아 소득이 적은 미얀마 농가가 쉽게 구매할 수 없음
- 미얀마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농기계 구매을 원하는 농가에게 지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함
- 신한은행은 미얀마 정부의 보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기계 구매 자금을 대출하고, 농가는 농기계를 구매하는 시점에 농기계 가격의 10~20% 만을 지불함. 나머지 금액은 3년에 걸쳐, 6개월에 한 번씩 신한은행에 상환함
-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정부가 ‘농기계 구매 협력사업’ 등 농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자 미얀마의 농기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2010년 3,097만달러였던 미얀마 농기계 총 수입액은 2015년 1억 4,807만 달러로 5배 증가하였음
- 주로 수입되는 농기계는 탈곡/세곡용 기계와 농업/임업용 기계임
- 미얀마의 한국산 농기계 수입액은 2012년 약 113만 8,000달러에서, 2013년 1,381만 2,000달러로 급증하였음. 2015년 한국산 농기계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097만달러였음

-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이 미얀마 정부의 '농기계 구매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미얀마의 한국산 농기계 수입액이 급증하였음. 대동공업은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계기로 미얀마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음
- 대동공업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사업 이후 한국산 농기계를 찾는 농가가 늘고 있다며, 향후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힘
- 최근 한국산 농기계가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아 미얀마에서 인기 끌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산과 태국산 농기계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음. 중국과 태국의 농기계는 주로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어 유통 비용이 적음
- 미얀마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매우 높음. 또한 미얀마는 1200만 ha에 이르는 농지와 열대기후, 풍부한 강수량 등 농업에 최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농업 기술의 발전 수준이 저조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음
- 농산물은 미얀마의 주력 수출품이며,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생산성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라 미얀마 농업 현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농기계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 미얀마 농기계 수출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동공업은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토대로 시장 개척에 성공했음. 미얀마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짐바브웨에 KOPIA센터 개소식 개최

- 한국 농업기술로 현지 식량난 해결... 농업협력 기반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일 짐바브웨 하라레 소재 짐바브웨 과학산업연구개발청(SIRDC1))에서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KOPIA) 짐바브웨 센터를 설치하면서 한·짐바브웨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짐바브웨 정부는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농촌진흥청에 KOPIA센터 설치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KOPIA 짐바브웨 센터 설치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짐바브웨 과학산업연구 개발청(SIRDC)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 5월 신임 소장을 파견한 바 있다.
- 짐바브웨는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경제난과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 KOPIA 짐바브웨 센터가 앞으로 추진할 한·짐바브웨 간 주요 농업 기술협력 사업은 △소농가에 적합한 소립종 곡물의 수확 후 처리 기계 개발, △양계기술 개발과 경영방법 개선, △무병 씨감자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등이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농업 현안 해결 및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짐바브웨 농업부 조셉 마데(Joseph. M. Made) 장관은 “한국의 혁신 농업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짐바브웨 농업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식량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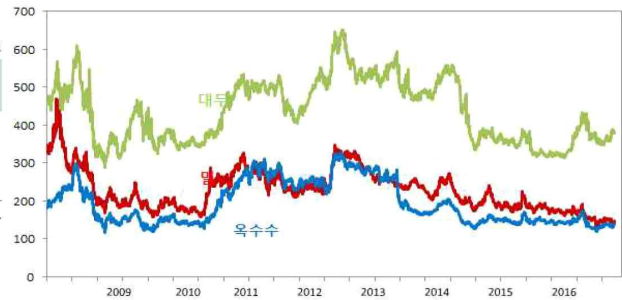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2. 12.(시카고 선물거래소)

아르헨티나 건조기후에 대한 우려로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2.09)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1)	2015 평균
밀	147.05	▲2.5%	148	186
옥수수	138.73	▲1.7%	136	148
대두	381.17	▲1.0%	369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 유입 인도의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그러나 풍부한 국제 공급량과 달러화의 강세는 가격 랠리를 제한하였음. 러시아 농업 자문회 사인 SovEcon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는 밀 70백만 톤을 포함한 총 114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세 유입 및 아르헨티나 건조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다음 주에도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조기후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 석유 가격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옥수수 가격은 지난 한 주간 3.3% 상승하였으며 이는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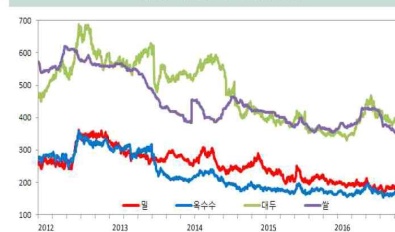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USDA의 수급 보고서에 앞선 포지션 스캐어링 및 목요일 가격 하락 이후의 Bargain-buying으로 인해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한 소식 및 아르헨티나 건조기후에 대한 우려도 가격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대두유 하락세의 압력과 더딘 수출 수요에 의해 3세션 연속 하락하며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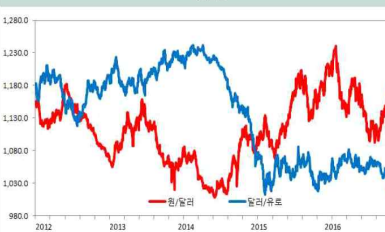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만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강세를 보임.
- 9일 국제유가는 비OPEC의 감산 동참 가능성, 사우디의 실제 감산 이행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고,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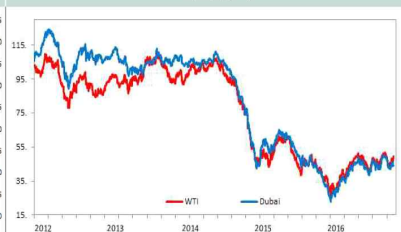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7 ▲1.1%	환율	원/달러	1,159.1 ▼0.9%
	옥수수	158 ▼0.6%		달러/유로	1.0615 ▼1.3%
	대두	395 ▼1.7%	국제유가	WTI	51.50 ▲1.3%
	쌀	364 -		Dubai	51.32 ▲2.0%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2.08(수출가격), '16.12.09(환율), '16.12.0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7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새누리·미품벼 등 6품종 2,346톤 공급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우리 쌀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벼 보급종 2,346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쌀 전업농 유통조직에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량 395톤을 경영체 별로 확정하였으며, 일반농업인에게 공급되는 1,951톤을 시·군별로 예시하고 신청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예시된 품종은 미질이 좋은 새누리벼 1,263, 미품벼 121, 윤광벼 122, 새일미벼 87, 신동진 68, 동진찰벼 290톤 등 6품종으로 이들 품종은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으며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아 순도가 높다.
- 신청기간은 12월 23일까지이며, 종자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된 즉시 공급량이 확정되므로 예시량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신청을 해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소독종자와 미소독종자를 구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신청된 벼 보급종은 파종전인 2017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식품부, 국산 알뜰배 기획전 등 판촉 행사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2월 7일부터 연말까지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알뜰배 기획전 등 국산 배 판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촉행사는 배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예년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재배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계획하였으며, 홈쇼핑 기획판매, 카드할인, 농협 유통매장 등을 통한 알뜰배 1+1 기획전 등을 추진한다.
- 이번 판촉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을 통해 5kg×2, 상품 약 1만 세트 기획판매(12월 중 화·목요일, 7회 예정)
- (카드할인) 농협 유통계열사에서 배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NH카드로 결제할 시 12만 상자(5kg)를 상자당 1천원(10% 수준) 할인 판매(12. 7.~11.)
- (1+1 기획판매) 우선, 소포장 알뜰배(4개입, 1.7kg 봉지) 6만개를 수도권 및 대도시 농협 대형유통센터를 통해 1+1 판매(12. 12.~17.)
- (기타) TV 프로그램을 통해 배의 효능, 요리법 등 배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단체와 대형마트에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 배는 맛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가족과 함께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11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